

# 대명사의 본질

—자연언어와 형식언어의 차이\*

김기영 (한국외대)

## I. 들머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연언어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을 할 때는 이를 엄격하게 다듬어 형식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 Gottlob Frege이다. 그의 책 *Begriffsschrift* (1879)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서 논리학사에서 2천여 년 간 내려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논리학과 현대논리학을 가르치는 이정표가 되었다. 따라서 프레게가 한 일을 “논리학의 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후 언어학과 분석철학 쪽에서는 자연언어의 형식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형식언어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올바른 논리표현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언어를 올바르게 분석해내야 한다. 흔히 대명사를 논리학이나 수학의 개념어인 변수 Variable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둘은 자연언어의 개념어와 논리언어의 개념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명사는 자연언어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의 준말 형태이다. 말줄임 현상이 언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아는 것은 곧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글에서는 대명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이 나타난 문장의 문법구조와 의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언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는다.<sup>1</sup>

\* 이 논문은 2002년 10월 25일 강릉에서 열린 한국독어독문학자대회에서 발표한 “대명사의 본질과 기호이론”의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1 이 글의 주제는 Hoang (1976; 1982; 1994)와 황종인 (1983)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많

## II. 자연언어와 형식언어

### II.1. 문법구조와 논리구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을 부러 쓸 때 필요에 따라 말의 한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이것은 언어의 경제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형식언어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언어의 편리한 점이다. 예컨대 이음말인 “und”를 담고 있는 다음의 독일어 문장 (1)은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적으로 되풀이하는 말을 빼고 (2)와 같이 쓴다.<sup>2</sup>

- (1) Hans ist ein Fußballfan, und Paul ist ein Fußballfan.  
 (2) Hans und Paul sind Fußballfans.

따라서 자연언어를 형식언어로 번역할 때는 생략한 것을 다시 갖다 붙이고 줄인 것을 다시 늘여야 한다. 하지만 자연언어에서 같은 기호를 늘 똑같이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장 (3)도 “und”를 담고 있고 문법구조가 (2)와 똑같지만 (4)처럼 늘일 수가 없다.

- (3) Fritz und Inge sind Geschwister.  
 (4)\* Fritz ist ein Geschwister, und Inge ist ein Geschwister.

예 (4)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앞의 경우와 달리 “Geschwister”가 두 자리 술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와 (3)은 문법구조는 같지만 논리구조가 서로 다르다. 다

은 수의 우리말 용어도 거기서 빌려온 것임을 밝힌다. 예컨대 Hoang (1976)에 나오는 “einfaches autonomes Syntagma”는 그가 만든 개념어로서 황종인 (1983)에서 “홀파로불이”로 번역을 해 쓰고 있다. “Syntagma”와 “Paradigma”는 언어학에서 각각 “결합”, “계열” 등으로 번역을 해 쓰고 있으나 이 한자어가 정확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도 드물어 선택의 폭이 좁은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붙이”와 “같이”를 그에 대한 알맞은 우리말 번역이라고 보고 황종인 (1983)에서 빌려와 썼다. 아울러 이와 이웃한 용어들인 “홀불이”, “파로불이”와 그밖에 “웃가방말”, “찬말”, “빈말”, “셈대명사”, “손가락질대명사” 등도 황종인 (1983)을 따라 쓴 것임을 밝힌다.

2 II.1의 예문들은 Beckermann (1997:46 이하)에서 가져온 것임.

음의 예 (5)는 더 복잡한 모습을 띤다.

(5) Thomas und Birgit sind verheiratet.

이 문장도 (2)와 (3)의 문법구조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2)와 (3)의 논리형태 둘을 다 갖고 있어 뜻겹침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술어 “verheiratet”가 두 가지 뜻을 겹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 (5)는 다음의 (6)처럼 Thomas와 Birgit이 각각 기혼자란 뜻으로, 그리고 (7)처럼 둘이 서로 결혼한 부부 사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6) Thomas ist verheiratet, und Birgit ist verheiratet.

(7) Thomas und Birgit sind miteinander verheiratet.

논리적으로 볼 때 (6)의 “verheiratet”는 한 자리 술어이고, (7)에서는 그와 달리 “miteinander verheiratet”가 두 자리 술어이다. 자연언어에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5)과 같이 줄여 씀으로서 하나의 기호가 두 가지 뜻을 지니는 뜻겹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언어는 형식언어에 비해 믿음성이 떨어진다.

## II.2. 본딤말과 준말

앞에서 우리는 언어의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되풀이하는 말을 빼서 긴 표현을 짧게 줄이는 것을 봤다. 자연언어에서는 또한 위의 예처럼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이웃한 낱말들이 한 낱말로 줄어 붙어 긴 표현이 짧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독일어에서 “Kurlaub”은 “Kur”와 “Urlaub”이 줄어서 된 말이고, 영어의 “smog”는 “smoke”와 “fog”를 줄인 말이며 요즘 유행하는 낱말인 “brunch”는 “breakfast”와 “lunch”가 줄어 붙어서 된 것이다. 이러한 말줄임 현상이나 그 결과로 나타난 준말을 가리키는 용어로 독일어는 Wortverschmelzung, Wortkreuzung, Wortmischung, Kontamination, Portmanteau-Morph 등이 있고 영어는 blends, contaminations, portmanteau words, telescoped words, amalgams, fusions, hybrids 등이 있다

(Hansen 1963:118 참조).

준말은 사전적(어휘적)인 낱말인 찬말 *lexikalisches Wort*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법적인 낱말인 빈말 *grammatisches Wort*에서도 나타난다. 독일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치사와 관사의 결합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zur”는 “zu”와 “der”에서, “ins”는 “in”과 “das”에서 줄어 붙었다. 붙어의 “au” 또한 “à”와 “le”의 준말이다. 준말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본딴말로 늘여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명사와 명사가 붙은 꼴은 다시 명사가 되기 때문에 품사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본 전치사와 관사의 결합형은 그 품사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독일어 “zur”가 전치사 “zu”와 관사 “der”가 줄어 붙은 것이라면 그것은 전치사인가 관사인가? 이런 말은 위에 든 영어 용어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잡종 *hybrid*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잡종을 황종인(1983:6)을 따라 옷가방말 *Portmanteau-Morph*이라 부른다. 옷가방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준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제한한다(같은 곳 참조).

첫째, 품사가 다른 낱말들이 들어가서 된 낱말이다.

둘째, 그 속에 든 낱말들 가운데 어느 것과도 같은 품사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찬말은 많아야 하나밖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빈말은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한다.

위의 조건에 따르면 앞서 든 예 가운데 독일어 “Kurlaub”나 영어 “smog”, “brunch”는 옷가방말에 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들은 (1) 품사가 같은 낱말들이 들어가서 된 낱말이고, (2) 명사 둘이 들어가서 다시 명사가 됐으며, (3) 빈말은 없이 찬말 둘이 들어가서 된 낱말이기 때문이다(같은 곳 참조). 하지만 독일어 “zur”나 붙어 “au”는 (1) 품사가 다른 낱말들이 들어가서 된 낱말이고, (2) 전치사와 관사가 들어가서 된 낱말이며, (3) 찬말은 없지만 빈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옷가방말인 것이다.

### III. 대명사의 정의

#### III.1. 명사붙이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낱말이 되는데 이때 그 낱말이 문법적인 형태소들 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문법적인 낱말인 빈말이 되고 사전적(어휘적)인 형태소를 적어도 하나만 담고 있으면 사전적인 낱말인 찬말이 된다. 찬말은 이 세상의 무엇을 가리키는 말로서 명사, 동사, 형용사가 그에 속하고, 빈말은 이 세상의 아무 것도 가리키지 않으면서 낱말들이나 붙이들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관사, 전치사, 접속사, 우리말의 토씨들이 그에 속한다<sup>3</sup>.

낱말이 이어져서 하나의 말의 단위를 이룬 것이 붙이 Syntagma이다.<sup>4</sup> 붙이는 형태소, 낱말, 구, 문장처럼 하나의 언어 단위이다. 붙이는 짧게는 한 낱말이거나 길게는 한 문장이 될 수 있다. 붙이에 찬말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 따로 설 수 있게 된 것을 따로붙이 autonomes Syntagma라 하고 찬말이 많아야 하나 들어간 붙이를 홑붙이 einfaches Syntagma라 한다. 그리고 찬말이 더도 덜도 아니고 하나가 들어간 붙이를 홑따로붙이 einfaches autonomes Syntagma라 한다(황종인 1983:7 이하 참조). 이때 찬말이 명사가 될 때 그 홑따로붙이를 명사붙이라 한다. 독일어에서 “Gerhard”, “in Berlin”, “vor der Kamera” 등은 홑따로붙이인 명사붙이가 된다. 마르티네 Martinet (1960:101)가 든 따로붙이들의 예 “letztes Jahr”, “in Eile”, “mit meinen Koffer” 가운데서 “in Eile”만이 찬말을 하나만 담고 있기 때문에 홑따로붙이가 된다. 나머지 둘은 찬말이 둘이 들어가 있어 홑따로붙이가 아니다.

#### III.2. 대명사와 웃가방말

황종인 (1983:14 이하)은 대명사를 관사와 명사가 하나씩 들어간 웃가방말로

3 찬말과 빈말의 구분은 황종인 (1983:5)을 따른다.

4 붙이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예컨대 Saussure 1916:147; Martinet 1960:101; Lyons 1968:173) 여기서는 황종인 (1982:383)을 따른다. “Any string of  $n=1, 2, \dots$  words is referred to as a SYNTAGM of length  $n$ ”.

보고 있다. 우리말의 “이이”, “그것”, “저기” 등은 각각 “이 사람”, “그 것”, “저 곳”으로 늘여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관사와 명사가 하나씩 들어간 옷가방말 말고도 토씨와 같은 빈말이 하나 더 들어간 것도 있다. 예컨대 “이리”는 “이 곳으로”가 줄어 붙은 것으로서 위에서 밝힌 옷가방말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관사와 명사가 하나씩 들어 있는 옷가방말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다. 독일어에서 “er”, “sie”, “es” 등은 각각 “der Mann”, “die Frau”, “das Ding”으로 늘여 볼 수가 있다. “hier” 역시 “an diesem Ort”로 늘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이다. 이것은 앞의 것들과는 달리 빈말인 전치사가 하나 더 들어간 꼴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볼 때 “hier”는 “er”, “sie” 등과 다른 역할을 하나 위에서 밝힌 대명사의 정의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명사가 명사와 통사적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대명사”란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한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통문법의 관점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설사 이 관점이 옳다손 치더라도 대명사가 명사와 통사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유럽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볼 때 맞지 않는 입장이다. 우리말에서는 “나”, “여기”, “이때”가 문법적으로 대명사로 분류된다. 기호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앞의 세 대명사는 한 부류에 들어간다. 현대기호학의 창시자 찰스 피어스 Charles S. Peirce는 자신의 기호론에서 이러한 대명사를 인덱스 Index라 부르고 명사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CP 2.287 참조). 독일어나 영어와 같은 유럽어에서도 의미론에서는 이 셋 모두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말하는 상황이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손가락질말 deiktischer Ausdruck로 분류를 하고 있다. 한편 언어철학에서는 이러한 말을 피어스의 기호론에서 따와 가리킴말 indexikalischer Ausdruck이라 부르고 있다.

### III.3. 관사와 대명사

전통문법에서는 흔히 관사와 대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몰아서 대명사라 부르고 있다. 많은 문법서와 사전에서 독일어 “dies”는 명사 앞에 올 때는 관사, 관사와 명사가 줄어 붙은 꼴일 때는 대명사인데도 이 두 경우 모두 손가락질대명사(지시대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1) Dieser Stuhl kommt aus Korea.

(2) Dieser kommt aus Korea.

위 문장 (1)에서 “dieser”는 “der”나 “ein” 등과 같은 같이 Paradigma에 들어가는 관사이고, 문장 (2)에서 나타난 “dieser”는 관사 “dieser”와 명사 “Stuhl”이 줄어 붙은 옷가방말인 대명사이다. 이런 손가락질관사와 손가락질대명사가 구별이 되는 것은 썸관사와 썸대명사가 구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Da kommt eine Frau.

(4) Da kommt eine.

위 (3), (4)의 “eine”처럼 하나를 나타내는 썸말이 관사와 대명사로 구별이 되듯이 “jeder”, “alle”와 같이 모두를 가리키는 썸말도 관사와 대명사로 구별이 된다.

(5) Alle Menschen sind sterblich.

(6) Alle sind sterblich.

위의 예문들에서 본 바와 같이 대명사 “dieser”, “eine”, “alle”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본딴말로 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붙이인 홀따로붙이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시킬 수 있다.

(7) Art + N

따라서 관사는 명사를 먹이 Argument로 하여 명사붙이를 값 Wert으로 내주는 함수표현 Funktionsausdruck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빈자리를 만들어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8) Art + ( )

## III.4. 섹대명사

프레게가 전통논리학에서 벗어나 현대논리학의 문을 열게 된 동인은 무엇보다도 섹관사를 함수표현인 술어로 본 점이다.

(1) Alle Säugetiere sind Landbewohner.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논리학이나 전통문법에서는 이 문장을 “alle Säugetiere”와 “Landbewohner”로 나누어 앞의 것을 “주어”라 부르고 뒤의 것을 “술어”라 부른다. 프레게는 이 주어, 술어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문장부정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문장을 부정할 때 “nicht”의 위치는 술어 앞에 놓이게 되는데 위 문장 (1)의 부정은 다음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cht”가 “Landbewohner” 앞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3)에서와 같이 “alle” 앞에 옴으로써 된다.

(2) Alle Säugetiere sind nicht Landbewohner.

(3) Nicht alle Säugetiere sind Landbewohner.

프레게에게서 술어 Prädikat란 개념 Begriff을 가리키는 개념어 Begriffswort의 문법적인 명칭이다. 위 문장에서 “Säugetiere”와 “Landbewohner”는 두말할 것 없이 개념어인 술어이다. 프레게는 위 실험을 통해 부정어 “nicht”가 “alle” 앞으로 오는 것으로 봐서 이 “alle”도 술어로 보고 있다 (Frege 1892:73 참조). 술어이되 나머지 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2단계 술어이다. 따라서 문장 (1)에서 “alle”를 뺀 나머지는 “alle”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풀어 쓰면 다음 (4)와 같이 되고 이를 논리언어로 형식화시키면 (5)와 같이 된다.

(4) Was Säugetier ist, ist Landbewohner.

(5)  $\forall x(S(x) \rightarrow L(x))$

다시 말해서 위 문장 (1)을 분석하면 연결사 Kopula “sind”를 뺐을 때 전통논리학이나 전통문법에서와 같이 (6)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7)과 같이 된다



(Tugendhat/Wolf 1983:90 이하 참조).

(6) Alle Säugetiere / Landbewohner.

(7) Alle // Säugetiere / Landbewohner.

위 (7)에서 “alle”는 술어인 두 개념어를 먹이로 받을 수 있는 함수표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빈자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8) Alle ( ) ( )

전통논리학이나 전통문법에서 “alle Säugetiere”가 한 단위가 될 수 있는데 반해 프레게가 보여준 현대논리학에서는 그것이 한 단위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Quantor”라고 하는 것은 자연언어로 치면 쉼관사에 해당한다. 다만 자연언어에서는 쉼관사와 명사가 명사구를 이루고 이것이 줄어 붙어 쉼대 명사가 되기도 하지만 논리언어에서는 이 둘이 한 성분을 이룰 수도 없고 더욱이 줄어 붙을 수도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위와 같은 모두쉼관사 Allquantor뿐만 아니라 하나쉼관사 Existenzquantor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5</sup>

(9) Einige Säugetiere sind Landbewohner.

문장 (9)는 논리적으로 볼 때 다음 (10)처럼 다시 쓸 수 있고 (11)처럼 형식화시킬 수 있다.

(10) Es gibt Säugetiere, die Landbewohner sind.

(11)  $\exists x(S(x) \wedge L(x))$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문장 (9)와 (10)은 (11)로 형식화될 수가 있어 논리적으로 구조가 같으나 문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

---

5 “Allquantor”와 “Existenzquantor”는 각각 “전칭양화사”와 “존재양화사”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Quantor”는 자연언어의 쉼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언어에서 볼 수 있는 문법구조는 논리구조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alle Säugetiere”와 “einige Säugetiere”가 각각 옷가방말인 대명사 “alle”와 “einige”로 줄어 붙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제 불가능해서 위 (5)의 “ $\forall xS(x)$ ”나 (11)의 “ $\exists xS(x)$ ”가 한 단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명사는 어디까지나 자연언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관사와 명사가 줄어 붙은 것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변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논리언어로 번역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명사가 변수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대명사가 변수 그 자체는 아니다 (Hoang 1986:9 이하 참조).

말이 줄어 붙을 때는 서로 이웃한 낱말들끼리 줄어 붙지 허리가 끊겨 멀리 있는 낱말하고 줄어 붙는 법은 없다. 독일어에서 부정의 썸대명사 “niemand”, “nichts” 등은 각각 “nicht ein Mensch”, “nicht ein Ding”이 줄어 붙은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 대명사는 없다. 그 이유는 부정의 부사 “nicht”가 독일어와 같은 유럽어에서는 명사구 앞에 오지만 우리말에서는 “안”이나 “못”이 동사구 앞에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이나 “못”은 뒤따르는 동사구와 줄어 붙을 수는 있어도 뒤따르지 않는 명사구와 줄어 붙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 문장 (12)의 논리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niemand”를 (12)처럼 “nicht ein Mensch”로 늘여 보고 (13)과 같이 옮겨야 한다.

(12) Niemand wird über hundert Jahre alt.

(12)' Nicht ein Mensch über hundert Jahre alt.

(13)  $\neg \exists x(M(x) \wedge H(x))$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으로는 “ $\neg \exists xM(x)$ ”가 한 단위가 될 수 없는데 독일어에서는 그제 한 낱말로 줄어 붙어 “niemand”가 되었다. 우리말에서는 부정의 부사와 명사구가 허리가 끊겨 나타나기 때문에 줄어 붙을 수가 없다.

(14) 아무도 백 살을 넘기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독일어 명사구 “ein Mensch”에 해당된다. 우리말에서는 문장 전체를 부정할 경우 부정의 부사를 명

사구 앞에 놓 수가 없으므로 동사구 앞에 놓고 그 대신 대명사 “아무”에 토씨 “도”를 붙인다 (Hoang 1994:9 이하 참조).

독일어에서 위에서 본 “nicht ein Mensch”를 “niemand”가 아니라 “kein Mensch”로 줄일 수도 있다. 이때 “kein”은 부정의 부사 “nicht”와 관사 “ein”이 줄어 붙은 것으로서 “niemand”와 마찬가지로 옷가방말이긴 하지만 대명사는 아니다. 따라서 “kein Mensch”에서 “kein”은 명사를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홀따로붙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말도 부정의 부사가 명사구 앞에 있다가 명사구의 한 부분인 관사와 줄어 붙었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구조상 나올 수 없는 말이다.

Barwise/Cooper (1981)는 현대논리학에서 다루는 논리적 표현이 자연언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셈관사와 명사를 합친 명사구를 새로이 “quantifier”라 정의하고 이러한 셈말을 “일반화된 셈말” generalized quantifier 이라 불렀다. 이에 따르면 다음 문장 (15)는 (16)처럼 프레게 이후의 현대논리학에서 하는 표현방식이 아니라 (17)처럼 자연언어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형식화된다 (Barwise/Cooper 1981:168 이하 참조)..

(15) Something runs.

(16)  $\exists x[\text{run}(x)]$

(17) Some(thing) run.

이같이 긍정의 셈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유럽어에는 있으나 우리말에는 없는 부정의 셈말구에서는 번역의 문제가 생긴다. 다음 영어 문장 (18)도 (19)로 표현할 수 있다.

(18) No woman comes.

(19) No(woman) come.

Barwise/Cooper (1981)는 “no”도 “some”이나 “every”처럼 관사인 한정사 Determinator로 보고 있다. 영어의 “no”나 독일어 “keine Frau”에서 “keine”는 단순한 관사가 아니라 부정의 부사가 같이 들어간 옷가방말이다. 따라서 이 옷가방

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본디의 모습으로 늘어 줘야 한다. 만일 “not”나 “nicht”를 파내지 않고 위 (19)처럼 그대로 놓으면 우리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정의 명사구를 나타내므로 논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다. Barwise/Cooper (1981)가 제안한 “일반화된 셈말” generalized quantifier은 자연언어를 잘 표현하는 논리구조를 밝히고 있다고 하나 그 이론이 영어나 독일어 같은 유럽어에만 바탕을 두고 세워졌기 때문에 위에서 본 부정어와 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Barwise/Cooper가 얘기하는 “quantifier”는 셈구로서 함수값으로 나온 명사구이다. 하지만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quantifier”는 셈관사로서 함수 표현이다.

### III.5. 손가락질대명사

칼 뵐러 Karl Bühler는 손가락질말의 영역을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그 좌표의 원점을 오리고 Origo라고 부르고 있다 (Bühler 1934:102 참조). 이 오리고에 속하는 낱말은 “ich”, “hier”, “jetzt”이다. 손가락질말은 가리키는 대상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오리고에 속하는 이 세 낱말은 손가락질말의 출발점으로 손가락질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er”, “dort”, “damals” 등은 주변부를 이룬다. 우리말과 일본말을 보면 이 주변부가 다시 돌려 나뉘어 알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이와 듣는이와의 거리에 따라 관사 “이”, “그”, “저”를 쓴다. 이에 해당하는 일본말은 “ko”, “so”, “a”이다. 우리말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이”를 쓰고, 말하는이에서 좀 떨어져 듣는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말하는이, 듣는이 모두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저”를 쓴다. 가리키는 대상을 사람, 시간, 장소, 물건 네 영역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대명사를 얻을 수 있다.<sup>6</sup>

6 손가락질대명사가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킬 때 그것은 받는대명사 anaphorisches Pronomen가 된다. 듣는이쪽 손가락질대명사 “그이”, “그때”, “거기”, “그것” 등이 받는 대명사로 쓰이면 3인칭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황종인 (1983:13 이하) 참조.

	말하는이쪽	듣는이쪽	제삼자쪽
사람	이이	그이	저이
시간	이때	그때	접때
장소	여기	거기	저기
물건	이것	그것	저것

위의 대명사는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손가락질관사 “이”, “그”, “저”에 이런 저런 명사를 갖다 붙이면 그에 해당하는 대명사로서 옷가방말을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사람을 가리키는 “이” 대신에 “놈”, “분”, “치”, “사람” 등을 놓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말의 손가락질말은 세 체계로 잘 발달되어 있고 각각에 맞는 옷가방말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생산적이다. 일본말과 라틴말도 이와 같이 손가락질관사가 세 체계로 되어 있다. 이를 우리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는이쪽	듣는이쪽	제삼자쪽
우리말	이	그	저
일본말	ko	so	a
라틴말	hic	iste	ille

독일어나 영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손가락질관사가 세 체계로 발달된 게 아니라 중심부, 주변부 둘로 나뉜다. 듣는이에 가까운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손가락질관사가 없다. 하지만 우리말의 말하는이쪽 손가락질말과 독일어의 중심부 손가락질말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말로서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둘은 벨러가 말하는 오리고에 속한다. 다만 독일어의 “ich”가 우리말의 “이이”나 “이사람”과는 달리 늘 말하는이를 가리킨다는 점이 다른데 우리말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말하는이쪽 손가락질말이 말하는이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우리말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저” 대신에 “이사람”, “이놈” 등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본다.

(1)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위 문장은 잘못을 뉘우칠 때 흔히 쓰는 말인데 “저” 대신 쓰인 “이놈”은 말하는이 자신을 가리킨다. 일본말에서도 이런 경우 말하는이쪽 손가락질말 “ko-itu”를 써서 자신을 낮춘다. 1987년 대통령 선거 유세때 한 후보의 구호였던 다음 문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2) 이사람 믿어주세요.

문장 (2)에서도 “이사람”은 말하는이 자신을 가리킨다. 한자말에서 볼 수 있는 “본인”이나 “본관”도 말하는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사람”과 같은 말이다.

우리말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손가락질말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로 말하는이를, “거기”로 듣는이를 가리킨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화통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여기는 잘 있다. 거기는 어떠냐?

다음은 한 영화장면의 대화인데 장소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sup>7</sup>

(4) 송화가 날 좋아할까요? 거기 딸 말이에요.

(Wird Song-Hwa mich mögen? Deine Tochter, meine ich)

이와 비슷한 경우를 독일어에서도 볼 수 있다.<sup>8</sup> 전화통화를 할 때나 방송을 할 때 말하는이가 자신이 누군지를 밝힐 때 “ich”를 쓰는 대신에 “hier”를 쓴다.

(5) Hier ist Tine.

(6) Hier ist Sandra Voss.

7 위 대화는 독일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한국 영화 “서편제” (Sopyonje - Die blinde Sängerin)에서 따온 것이고 그 밑의 독일어 번역은 독일어 자막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8 독일어 인칭대명사 “ich”의 어원을 보면 손가락질대명사로서 인도유럽어에서 “hier”와 연결되어 있다 (Bühler 1934:108; Brugmann/Delbrück 1911:307 참조).

이와 달리 영어권에서는 “here” 대신에 “this”를 쓴다. 위 (5), (6)에 해당하는 말로 다음 (7), (8)이 있다.

(7) This is Bill Clinton speaking.

(8) This is Charlie Brown.

이렇듯 빌러의 오리고에 속하는 “ich”, “hier”, “jetzt”는 손가락질의 영역에서 중심을 이루고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언어철학에서 흔히 예를 드는 다음 명제는 선형적 a priori 참이다.

(9) Ich bin jetzt hier.

위 문장 (9)는 입 밖에 낼 때 거짓이 될 수 없고 늘 참이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이로서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 “ich”, “jetzt”, “hier”가 오리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빌러의 오리고에 속하는 세 가지 손가락질대명사 “ich”, “jetzt”, “hier”를 하나로 묶어주는 요소는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관사 “dies”이다.

위에 든 세 가지 손가락질대명사에 사물을 가리키는 손가락질대명사 “dies”를 더하면 중심부 손가락질말은 “ich”, “jetzt”, “hier”, “dies” 넷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넷은 각각 “diese Person”, “diese Zeit”, “dieser Ort”, “dieses Ding”으로 늘어 볼 수 있고 손가락질 관사 “dies”를 통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말에서 말하는이가 누군가의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10) 여기 봐.

(11) 나 좀 봐.

(12) 이것 봐.

위에서 보듯이 중심부에 들어 있는 사람, 장소, 물건을 가리키는 손가락질말은 서로 엇갈려 쓸 수가 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종합하면 중심부 손가락질대명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도식화할 수가 있다.

- (14) diese Person -> ich  
 diese Zeit -> jetzt  
 dieser Ort -> hier  
 dieses Ding -> dies

위에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표현들에서 명사인 “Person”, “Zeit”, “Ort”, “Ding”을 빼내면 공통적인 부분만 남게 된다.

- (15) dies + ( )

위 (15)는 함수표현으로서 먹이로 “Person”을 주면 함수값이 “ich”가 되고, “Zeit”를 주면 “jetzt”, “Ort”를 주면 “hier”, “Ding”을 주면 “dies”가 된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사는 함수표현이다. 거기에 명사가 들어가서 명사구가 되는데 그게 줄어 붙어 다시 한 낱말이 되는 것은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논리학이나 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없다. 독일어에서 “hier”와 “dieser Ort”는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 영어에서도 “here”와 “this place”는 하나는 옷가방말인 대명사로, 다른 하나는 본래 모습인 명사구로서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우리말이나 일본말에서는 형태상으로도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다. “이곳”, “koko”는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옷가방말로서 그것을 늘인 본래 모습인 명사구와 차이가 없다. 20세기 후반 언어철학에서는 카플란을 따라 대명사인 “here”와 본래 모습의 명사구인 “this place”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앞의 것을 “indexical”, 뒤의 것을 “demonstrative”라고 부르고 있다 (Kaplan 1977:534 이하 참조). 그러나 지금까지 봐온 대로 이 둘의 차이는 자연언어에서 볼 수 있는 말줄임 현상이 나타났는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하나는 옷가방말인 대명사로, 다른 하나는 본래 모습인 명사구로 나타났을 뿐이다. 만일 카플란 얘기대로 “here”는 손가락질이 필요치 않고 “this place”는 꼭 손가락질이 필요하다면 우리말의 “이곳”과 일본말의 “koko”는 “here”와 “this place” 둘 다 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카플란은 퍼어스 용어인 “indexical”을 빌려 쓰면서 이



것을 “demonstrative”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의를 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퍼어스의 인덱스는 손가락질말을 포함하고 있어 “demonstrative”는 언제나 “indexical”이다.

####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자연언어와 형식언어를 구별하면서 대명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썸대명사와 손가락질대명사의 성격을 살펴봤다. 대명사는 옷가방말로써 자연언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본딧말로 늘여 보아야 한다. 한편 손가락질대명사를 형식화하기 위해서는 기호론적인 관점을 들여와 우선 그 뜻을 더 밝혀야 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 글에서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명사는 관사와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 관사는 명사를 필요로 하는 함수표현이고 대명사는 홀파로불이로서 관사와 명사가 줄어 붙은 옷가방말이다.

2. 옷가방말은 논리언어에는 없는 자연언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명사를 논리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늘여 보아야 한다. 부정의 썸대명사 “niemand”는 “nicht ein Mensch”로 “nichts”는 “nicht ein Ding”으로 늘어난다.

3. 중심부 손가락질대명사는 관사 “dies”를 담고 있다. 이 말하는이쪽 손가락질관사가 바로 오리고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에 속하는 대명사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구실을 한다.

#### 참고문헌

- 황종인 (1983): “명사불이의 문법”, In: 한글 15, 379-402.  
 Almg, Josef/ Perry, John/ Wettstein, Howard (eds.)(1989): *Themes from Kaplan*,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rwise, Jon/ Cooper, Robin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159-219.
- Beckermann, Ansgar (1997): *Einführung in die Logik*, Berlin: Walter de Gruyter.
- Brugmann, Karl/ Delbrück, Berthold (1911): *Grundriß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Bd. 2, Teil 2, Strassburg: Karl J. Trübner.
- Bühler, Karl (1934): *Sprachtheorie*, 3. Aufl., Stuttgart: Lucius & Lucius, 1999.
- Frege, Gottlob (1879): *Begriffsschrift*, Hildesheim: Georg Olms, 1977.
- Frege, Gottlob (1891): "Funktion und Begriff", In: Patzig, Günther(Hrsg.)(1969), 18-39.
- Frege, Gottlob (1892): "Über Begriff und Gegenstand", In: Patzig, Günther(Hrsg.) (1969), 66-80.
- Hansen, Klaus (1963): "Wortverschmelzungen", In: *Zeitschrift für Anglistik und Amerikanistik* 11, 117-142.
- Hartshorn, Charles/ Weiss, Paul (eds.)(1931-35):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Vol. I-IV,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d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74.
- Hoang, Chong In (1982): "Translation Caculus: Korean-German & German-Korean", In: *Journa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ol. 15, 379-402.
- Hoang, Chong In (1986): "On Some Untenable Concepts in Chomskian Linguistics", Unpublished.
- Hoang, Chong In (1994): "Von der Unzuverlässigkeit der natürlichen Sprache", Referat auf der 1. IDV-Regionaltagung Asien, Beijing, Manuskript, 1-15.
- Kaplan, David (1977): "Demonstratives: An Essay in the Semantics, Logic,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of Demonstratives and Other Indexicals", In: Almog, Josef/ Perry, John/ Wettstein, Howard (eds.)(1989), 481-563.
- Lyons, John (1968): *Einführung in die moderne Linguistik*, übersetzt von W. und G. Abraham, 5. Aufl., München: C.H.Beck 1980.
- Martinet, André (1960): *Grundzüge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übersetzt von Anna Fuchs, 5. Aufl., Stuttgart: W. Kohlhammer 1971.
- Patzig, Günther (Hrsg.)(1969): *Funktion, Begriff, Bedeutung*, 3. Aufl.,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Peirce, Charles 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s*, Vol. I-VI, In: Hartshorn, Charles/ Weiss, Paul (eds.)(1931-35).

- Saussure, Ferdinand de (1916):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übersetzt von Hermann Lommel, 2.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 Tugendhat, Ernst/ Wolf, Ursula (1983): *Logisch-semantische Propädeutik*, Stuttgart: Reclam, 1993.

## Zusammenfassung

### Das Wesen des Pronomens

– Zur Unterscheidung zwischen natürlicher und formaler Sprache

Kim, Ki-Yo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ist es, das Wesen des Pronomens, das der traditionellen Grammatik gegenübersteht, offen zu legen und zu zeigen, wie es in die Bedeutungstheorie eingebettet wird.

Das Pronomen ist nach Chong In Hoang (1983) ein Portmanteau-Morph, das aus einem Artikel und einem Nomen verschmolzen ist. Beispielsweise steht “er” für “der Mann”, “sie” für “die Frau”, “jemand” für “ein Mensch”, “nichts” für “nicht ein Ding”, “niemand” für “nicht ein Mensch”, “hier” für “an diesem Ort”, “jetzt” für “zu dieser Zeit” usw. Das Pronomen unterscheidet sich grammatisch scharf vom Artikel. Der Artikel benötigt ein lexikalisches Wort, um ein einfaches autonomes Syntagma (EAS) zu sein. Daraus folgt, daß der Artikel ein Funktionsausdruck ist, der für ein Nomen als Argument ein EAS als Wert ergibt. Wenn das EAS verschmolzen wird, entsteht ein Pronomen als Portmanteau-Morph. Also ist das Pronomen ein Funktionswert.

Die Verschmelzung ist ein natürlichsprachliches Phänomen, das die Logik nicht kennt. Um die Bedeutung eines Pronomens zu erkennen, muß man es in die Vollform auflösen, weil es eine verschmolzene Form Portmanteau-Morph ist. Die zur Störung der Kommunikation führende Verschmelzung findet sich in

europäischen Sprachen wie Deutsch und Englisch, in denen der Negator “nicht” mit einem Nominalsyntaxma verschmolzen werden kann, was in anderen Sprachen wie Koreanisch nicht möglich ist.

Die Vollform der Pronomina, die zum deiktischen Zentrum gehören, enthält einen proximalen Artikel “dies”, der ein entscheidendes Merkmal der Origo ist. Die Vollform der Pronomina, die zur deiktischen Peripherie gehören, enthält hingegen einen mesialen oder einen distalen Artikel. Also steuert der Artikel den Produktionsprozeß der Pronomina und die Bestimmung von deren Charakter.

검색어: 대명사, 함수, 셈말, 손가락질말, 부정

Schlüsselbegriffe: Pronomen, Funktion, Quantor, Deixis, Negation